



와이드벤처지 디지털기기 터치펜 '모션펜키즈'

# “회로·배터리 없이 SW로만 작동해 신기하죠”

(소프트웨어)

“평소에는 자석처럼 붙었다가 필요할 때 떼어서 필기구로 쓰면 됩니다. 기존 디지털기기의 센서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SW)가 핵심 기술이죠.”

벤처기업 와이드벤처의 고재용 대표는 발명가다. 휴대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디지털기기의 액세서리를 주로 개발하는데 주력 제품은 터치펜인 모션펜키즈와 탈부착형 조이스틱이다. 모션펜키즈는 마치 지우개가 달린 연필처럼 휴대폰 화면에 대고 글씨를 쓴 뒤 뒷부분으로 지우는 필기구다. 조이스틱은 휴대폰에 끼운 뒤 손가락으로 고무 스틱을 조종하면 게임을 하거나 콘텐츠를 제어하는데 편리하다.

◆회로·배터리 없는 모바일 액세서리 와이드벤처가 개발한 모션펜키즈는 국내외 비슷한 휴대폰용 펜과는 차이가 있다. 기존 휴대폰용 펜은 펜 안에 회로를 넣어 블루투스로 연결하거나 배터리를 내장하는 복잡한 형태가 주를 이뤘다.

모션펜키즈는 알루미늄과 고무, 자석 등으로만 이뤄져 길보겐엔 단순한 자석 장난감 같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기존 내장 센서를 추적할



고재용 와이드벤처 대표가 휴대폰에 끼운 조이스틱과 모션펜키즈를 보여주고 있다. 문혜정 기자

연필처럼 쓰고 지우는 펜... 모든 디지털기에 호환 휴대폰에 끼우는 조이스틱으로 콘텐츠 자유롭게 조종

용하는 독특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했다. 복잡한 하드웨어가 필요 없어 제품 구성이 단순하고 가볍다. 대신 휴대폰에 전용 앱(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기만 하면 된다. 고 대표는 “별도의 충전 시스템이나 블루투스 연결이 필요 없고 모든 휴대

폰 및 태블릿PC에 쓸 수 있는 펜”이라며 “가격이 싸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와이드벤처는 기존 기기의 가장 센서를 활용해 사용자가 입력하는 내용을 판단·처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와이드벤처-터치펜 모션펜키즈 070-7603-0492 △홈바이오-담그네 발효용기 (053)565-6661 △에브리넷-물걸레 로봇청소기 에브리넷 (031)759-8917 △아이쿠우-크라크라 3 in 1 멀티체어 1644-1918

에 특허 세 건을 출원했다. 이 특허 기술을 적용해 탈부착형 조이스틱도 개발했다. 휴대폰에 끼우고 손가락으로 고무 조이스틱을 조종하면 휴대폰이 내용을 인식한다. 가상현실(VR) 고글에 붙이면 이동 방향 등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이달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고 대표는 모션펜과 조이스틱을 미국 유명 완구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기

업체 등도 관심을 보여 판매를 논의하고 있다. 펜과 조이스틱은 모두 소비자 가격이 2만원 안팎이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용 발명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박사 출신의 고 대표는 의류기기 상장업체인 매디스에서 근무하다 2000년대 초반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이터코러스라는 업체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2006년 네이버에 매각했다. 이만 인연으로 한때 네이버에서 기술기획팀장으로도 근무했다. 작년 8월에는 서울 강남역 부근 네이버의 개발자 창업 공간인 ‘D2 스타트업 팩토리’ 입주 기업으로 선정됐다. 네이버가 기술 중심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는 곳이다.

모션펜과 탈부착 조이스틱은 모두 고 대표가 집에서 두 아이와 놀면서 발명했다. 그는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와 함께 자라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며 “못 가지고 놀도록 잔소리하기보다 오히려 함께 가지고 놀면서 어떻게 더 편리하게 사용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 ‘디즈니 베이비돌’ 8월부터 중국 생산 가이아, 원가 낮춰 아시아 시장 공략

완구업체인 가이아코퍼레이션이 오는 8월 중국 칭다오에 인형 생산 공장을 준공하고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디즈니 베이비돌’ 생산을 본격화한다.

나원석 가이아코퍼레이션 대표(사진)는 “올 크리스마스 출시를 목표로 8월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중국 공장을 발판삼아 홍콩과 대만,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2일 밝혔다.

디즈니 베이비돌은 미국 디즈니사가 만든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인어공주’ ‘신데렐라’ 등 캐릭터를 5-7세 유아 모습으로 제작한 인형이다. 2013년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국내에서 해외 직구(직접구매)로만 5만 개 이상 팔렸다.

가이아코퍼레이션은 디즈니에서 라이선스를 받아 베이비돌 생산에 뛰어 들었다. 2014년 4월 내놓은 베이비돌 ‘골드라벨’은 국내에서 10만 개 이상 팔렸다. 해외직구로 베이비돌을 사려면 환율과 배송비에 따라 4만~5만 원이 들지만 골드라벨은 국내 온라인몰에서 3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에서 앞섰



다. 나 대표는 “베이비돌 얼굴 형태를 동양인에 맞춰 내놓으니 국내 어린이들이 더 좋아한다”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대신 직접 공장을 지어 생산하면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8월 준공 예정인 칭다오 공장의 생산능력은 연간 10만 개 규모다. 나 대표는 “시장 반응에 따라 연간 50만~100만 개까지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아코퍼레이션은 지난해 255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 매출 목표는 400억원이다. 2015년 유진로봇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 “제대혈 줄기세포로 아토피 근본적 치료 가능”

강경선 강스템바이오텍 의장

“제대혈 줄기세포가 아토피 치료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겁니다.”

강경선 강스템바이오텍 이사회 의장(사진)은 지난달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대 수의대학 교수인 강 의장은 2005년 같은 대학에서 제대혈 줄기세포 응용사업단장을 맡았고 당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강스템바이오텍을 창업했다. 이 회사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그는 “자가면역질환은 인식체계에 문제가 생겨 자기 방어군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병으로 휴전선을 지키던 우리 군인이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며 “방어군이 피부를 공격하면 아토피, 관절염 류머티즘, 장이면 크론병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시판되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가 육해·공군의 무차별 공격에 한 개 소대만 무력화시켰다면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제는 3군을 모두 호령하는 ‘면역 사령관(immune commander)’ 역할을 하



부작용 적고 가격 경쟁력 뛰어난 아토피 치료제 ‘퓨어스텝-AD’ ‘2019년 예정대로 시판할 것’

면서 근본적인 치료를 돕는다”고 말했다.

그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항체를 이용한 바이오의약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했다. 최근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가 출시한 아토피 치료제 듀픽센트(성분명 듀필루맙)는 연간 약값이 3만7000달러(4200여만원)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강 의장은 “듀필루맙은 특정 기전만 차단하기 때문에 약이 듣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속적

으로 맞으면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비해 제대혈 줄기세포는 이식 거부반응이 없어 부작용이 없고 쉽게 대량 생산할 수 있어 꺼내 바로 투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개발하는 아토피 치료제는 생산하는 데 서너 달 걸리는 약이 아니라 환자 가 오면 선반에서 꺼내 바로 투여할 수 있는 기성제품”이라며 “지금은 항체와 약품이 대체지만 줄기세포 치료제의 시대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강 의장은 현재 ‘임상 2b상’이 진행 중인 아토피 치료제 퓨어스텝-AD가 조건부 판매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견에 대해 “2019년 시판 일정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상 2상 자료만으로 조건부 판매 허가를 받더라도 3상을 해야 하고, 후기 임상으로 진행하면 일정에 큰 영향이 없어 회사로서는 더 좋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유럽과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시작한다”며 “최고기술책임자(CSO)로 물러난 만큼 연구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 창업선도대학 기술창업자 320명 선발

중기청, 연간 최대 1억원 지원

창업 인프라와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갖춘 40개 창업선도대학이 예비 글로벌 기술창업자를 찾아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전국 40개 창업선도대학에서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2017년도 ‘창업아이템 사업화 예비창업자 2차 모집’에 틀어막고 2일 발표했다. 2차 모집에서는 320명 안팎을 선발할 예정이다. 후속 지원과 지난 4월 마감한 1차 모집에서 선정된 703명을 포함해 올해 1206명의 예비창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창업선도대학 모집 분야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 중심’과 일반 ‘아이디어 중심’으로 나뉜다. 이 중 기술창업자 육성 목표를 올해 전체 창업자의 40% 이상으로 높였다. 창업팀 구성과 투

자 유치 요건 등을 충족한 전문기술자에게 최대 1년간 1억원까지 사업화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수와 석·박사, 연구원 등 전문기술인력의 창업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창업자에게는 사업비의 70%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시제품 개발비, 마케팅비 등을 지원하고, 연세대 한양대 등 입소형 창업선도대학은 창업공금을 무상 제공한다. 바이오 특화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울산대는 전체의 50% 이상을 바이오 분야 창업자로 뽑고 서울아산병원 인프라를 활용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21일 오후 6시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 서류없이 노란우산공제 가입 중기중앙회, 3일 서비스 시작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서류 없이도 사회안전망 서비스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부터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무서류 가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응용프로그램)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장정보(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매출 등)를 확인, 제출 서류로 인정한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라 정부(중소기업청)가 관리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www.jobjoy.com

2017.07.03~07.23 Vol.126

최초 공개 <캠퍼스 잡앤조이>·크레딧잡 공동 조사

2016년 30대 그룹 채용 지도

롯데 입사자 1만 8587명 '1위'

소셜벤처 잇다 조윤진 대표

“취업 고민, 현직자 멘토가 무료 답변”

ABC 부수인증업체 한국경제신문

가격 4,000원 / 정기구독 80,000원 / 구독문의 02-360-4841 / 광고문의 02-360-4821 / 사업문의 02-360-4831